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만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불안과 위안·내면적 풍경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진아

불안과 위안·내면적 풍경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만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진아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4년 ‘보이지 않는 것’ 석사 청구전을 바탕으로 불안한 감정을 본인 작업의 자극으로 삼고 어두운 감정들을 관찰하면서 본인의 심리상태를 이미지화 한 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위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다.

사람은 탄생부터 살아가는 과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이 불안의 연속이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곳에서 불안을 느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이상과 현실 차이에서 오는 불안 등. 불안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무한경쟁, 성과주의로 불안감을 더욱 가중 시킨다. 이로 인해 존재론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은 각자에게서 작거나 크게 불편한 감정으로 온다.

연구자는 가끔씩 힘든 감정들이 올 때면 도대체 이런 불편한 감정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느꼈던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출발하여 성장하면서 불안한 정서는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불안한 감정이 물밀듯 오고 가면 공허한 상실감이 와서 참기 힘들었지만 창작 활동을 통해서 연구자는 여태껏 보지 않았던 내면을 대면하려고 애썼다.

늘 심리기저에 있는 불안한 감정이 순간적인 감정과 그 당시 본인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연구자의 상상이 결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되었다. 즉, 부정적인 불안한 감정은 연구자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자극’이 되었다.

보이지 않았던 감정을 시각화시켜 그 이미지를 대면하면 스스로 자아 인식

이 되었고 자연스레 마음의 안정감과 동시에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 작품 활동을 하는 전 과정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자 스스로 위로를 해주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불안을 통해서 내면풍경을 봄으로써 창작활동으로 희열과 마음의 안정,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불안한 감정이 연구자에게 영향을 미쳐 어떻게 작품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서술하였고 조형적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작품분석을 통해 불안과 위로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알 수 있게 설명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불안과 위안 · 내면적 풍경	4
2. 조형적 연구.....	9
1)드로잉.....	10
2)여백과 점경 인물.....	12
3)희미한 색채와 선.....	15
3. 작품해설.....	17
III.결론.....	38

참고문헌

ABSTRACT

작품 목차

- 【작품1】 R.I.P (REST IN PEACE) / 순지에 혼합재료 / 194 X 130cm / 2014
- 【작품2】 R.I.P (REST IN PEACE) 드로잉 / 종이에 사인펜 / 25 X 35cm / 2014
- 【작품3】 R.I.P (REST IN PEACE) 드로잉 / 종이에 사인펜 / 25 X 35cm / 2014
- 【작품4】 바다, 밤, 우리 / 장지에 혼합재료 / 130 X 115cm / 2014
- 【작품5】 바다, 밤, 우리 드로잉 / 종이에 연필 / 38 X 53cm / 2014
- 【작품6】 HER / 장지에 혼합재료 / 194 X 130cm / 2014
- 【작품7】 HER / 종이에 먹, 연필 / 27 X 22cm / 2014
- 【작품8】 검은 물을 보는 나의 태도, 드로잉/ 종이에 연필 / 38 X 53cm / 2014
- 【작품9】 우물을 보는 사람들 / 종이에 혼합재료 / 43 X 61cm / 2014
- 【작품10】 검은 물을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 장지에 혼합재료 / 194 X 130cm / 2014
- 【작품11】 또 다른 나 / 종이에 혼합재료 / 38 X 53 cm / 2014
- 【작품12】 망망대해 / 종이에 혼합재료 / 38 X 53cm / 2014
- 【작품13】 인연 / 장지에 혼합재료 / 135 X 90cm / 2014
- 【작품14】 인연 드로잉 / 종이에 연필 / 45 X 38cm / 2013
- 【작품15】 탈출, 다시 안 / 종이에 혼합재료 / 97 X 132 cm / 2014
- 【작품16】 자화상 / 종이에 혼합재료 / 46 X 46cm / 2014
- 【작품17】 위로 / 종이에 혼합재료 / 73 X 60cm / 2014
- 【작품18】 화 / 종이에 혼합재료 / 145 X 91cm / 2014

- 【작품19】 서로의 불꽃 / 종이에 펜 / 26 X 18cm / 2014
- 【작품20】 혼자 있는 시간 / 종이에 혼합재료 / 27 X 22cm / 2014
- 【작품21】 혼자 있는 시간 / 종이에 연필 / 41 X 27cm / 2014
- 【작품22】 혼자 있는 시간 / 종이에 혼합재료 / 96 X 73cm / 2014
- 【작품23】 두 세계 / 종이에 물감, 연필 / 38 X 53cm / 2014
- 【작품24】 키스 / 종이에 연필 / 41 X 27cm / 2014
- 【작품25】 회오리 / 종이에 연필 / 41 X 27cm / 2014
- 【작품26】 우리 / 종이에 먹, 연필 / 58 X 44cm / 2014

도판목차

- 【도판1】 몽크, <키스>, 32.7 X 26.3cm, 에칭, 1895
- 【도판2】 몽크, <절규>, 35.2 X 25cm, 석판화, 1895
- 【도판3】 몽크, <외로운 사람들>, 15 X 21.2cm, 드라이포인트, 1894
- 【도판4】 루이스 부르주아, <탄생>
- 【도판5】 루이스 부르주아, <Just Hanging>, 76.2 X 61cm, 2009-2010
- 【도판6】 루이스 부르주아, <여자=집>, 35.6 X 38.1 X 66cm, 2001
- 【도판7】 팔대산인, <안일책의 여섯 번째 작품 쏘가리>
- 【도판8】 팔대산인, <하화쌍부도죽>

I.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불안으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의 변화를 인지하고 관찰함으로써 본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스스로 위안과 치유를 받는 과정에 대해 연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품을 진행하게 되는 배경과 목적, 작품의 내용적 연구와 작품 내용에 따른 작가연구, 조형적 연구,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불안과 위안의 내면적 풍경을 설명하도록 한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언젠가부터 점점 심각해졌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경쟁사회, 성과주의 등 이러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개개인은 스트레스와 불안은 극에 치닫고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연구자 또한 불안이 심리 안에 머물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무시한 채 살아간다. 이렇게 지나치고 덮고 지내던 심리 안에 불안은 예기치 않게 나타나서 연구자를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많은 감정들 중 불안이라는 감정이 본인의 심리 변화를 많이 일어나게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불편한 심리가 지속될 수록 시선은 내면으로 향했다.

조형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가는 곳부터 자아의식의 언어는 시작이 된다. 그 다음은 어떠한 것을 그리고 싶은 갈망으로 표현이 된다.¹ 연구자는

¹ 가오성젠,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p.215

나와는 동떨어진 외부에 있는 것들을 봐도 시선이 결국 머무는 곳은 내면 풍경이었다. 변화무쌍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이 흥미로웠다. 한낱 바뀌는 감정으로 인해 그 때 보이는 풍경, 내 시선이 가는 곳, 나의 행동들이 같이 변화한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처럼 연구자는 불안과 우울한 감정들이 사유의 동기가 되었다.

창작 활동을 통해 언제부터 나에게 불편한 감정들이 크게 다가왔을까, 어떻게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로 거슬러 올라가니 어렸을 적 연구자와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 두 분의 관계에서 출발하였다. 즉 나 아닌 다른 타인과의 관계, 개인적인 사유에서 불안은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 때의 정서가 지금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성장해서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다. 죄책감이 밀려 왔지만 오히려 끝까지 가보니 편안해진 나를 볼 수 있었다. 또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아를 찾고 인식해야만 했다. 칼 융은 대부분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 자기와의 의식적인 대화가 시작된다.² 라고 하였듯이 연구자는 여태껏 덮으려고만 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면하고,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의 어두운 곳 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순수하게 듣는 것이 필요했다.

본 연구로 하여금 변화하는 불안한 감정을 주시하고 관찰하며 본래의 나의 정서로서 받아들이고 창작활동을 통한 긍정적 발산과 나아가 스스로에게 위안을 받는 본인 작품이 철학, 미학 등 기준에 있던 이론들의 흐름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하겠다.

² 카를 융,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4, p.258

그리고 연구를 하기 앞서 본문 1장에는 불안과 치유의 과정에 대한 작품의 내용적인 이야기와 불안을 예술로 구현한 작가인 몽크와 루이스부르주아, 팔대산인의 삶의 배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떻게 예술적 승화를 하였고 연구자의 작품과는 어떤 차이와 공통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2장에는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으로 드로잉의 표현 방식과 작품 화면을 크게 차지하는 여백과 점경 인물, 희미한 색채와 연약한 드로잉 선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문 3장에는 이를 바탕으로 본인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해설을 해 보기로 한다.

처음에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시작했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무의식’³ 이기에 결코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라고만 생각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또한 연구자의 작품을 봄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밝지만은 않은 어두운 내면을 보기를 바라고 이 연구가 앞으로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

3 융의 이론에서 집단적 무의식이라고도 하며, 개인무의식과는 구별이 된다. 개인 무의식은 삶의 경험에 의존하여 형성이 되지만 집단무의식은 어느 나라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현 세계에 반응하도록 인류 이정부터 잠재 가능성을 후세에 전달이 된다. 예를 들어 백과 어두움의 공포에 반응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 유전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집단무의식은 근원적 정신이고 원초적인 심성이다. 켈빈S.홀, 버논J.노드비, 『융 심리학 입문』, 문예 출판사, 2004, p.60-65

II. 본론

1. 내면적 풍경

역사 이전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에는 항상 불안이 존재한다. 인간의 삶에서 불확실성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기 때문에 불안은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마음에 테러를 하고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며 전쟁을 한다. 그리고 인간은 원하던 원치 않던 태어나게 되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탄생과 죽음처럼 인간이 사는 모든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연속이다.

불안의 기원을 출생이라고 본다면 삶의 시작에서 느끼는 불안의 감정은 ‘분리’를 통해 시작된다. 태아는 엄마의 자궁 밖으로 나오면서 엄마와 분리가 되고, 각각의 개인으로 분리된 채 불완전한 상태로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⁵ 우리는 혼자라는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타인들과 관계를 맺어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 외부세계와 결합을 하거나 타인과 사랑을 한다.⁶

연구자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불완전하고 무력한 객체이다. 불안은 어렸을 적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 두 분의 관계에서 출발 하였다. 즉 나 아닌 다른 타인과의 관계, 개인적인 사유에서 불안은 시작되었던 것 같

4 앨런 호위츠, 『불안의 시대』, 중앙북스, 2007, p.89

5 프로이트, 『프로이트 전집 1:정신분석 강의』, p534

6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문예 출판사, 2004, p.24

다.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그 정서는 지금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인류의 평생의 숙제인 분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과 융합을 하려 하지만 연구자는 알 수 없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불안,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불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존재에 대한 불안 등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연구자를 불편하게 하는 불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출발해 나 자신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번졌다. 사람들에게 탄생과,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불안에서부터 개인적인 불안, 그리고 사회 분위기로 인한 불안으로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 심리에 불안은 만들어 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밝고 평온하게 살아간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불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지나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숨기며 살아간다. 불안은 언제, 어떤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자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자신이 열등하고 생각하는 부분, 여린 어떠한 부분으로 불안은 용케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 대인관계, 돈, 죽음, 성공, 지위, 외모, 성적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하게 혹은 크게 신경 쓰이는 것들과 불안이 만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불안을 스스로 혹은 사회적으로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되며 그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삶의 방향성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불안한 마음속을 관찰하고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곳에서 오는 불안은 연구자에게 ‘창조적 자극’⁷⁾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개인적인 감정을 예술로 승화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감정들을 막연하게 당해 내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감정을 가시화하고

⁷⁾ 권지은, 『불안의 극복을 주제로 한 회화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2015, p.1

자아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서 편안함을 느꼈다. 연구자는 창조 활동을 통해 승화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화란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성적욕구, 공격적 욕구가 전환되어 외부세계에 사회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게 배출되는 무의식의 과정이다.⁸ 연구자가 불안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나 신경증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환영 받지 못하는 불안한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하는 것은 바람직한 승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창작 활동을 통해 불안을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감정의 정화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었다. 이것은 창조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삶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정서를 생산적 발산을 통해 자신에게 위로를 하고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의 작품을 알아보고 연구자의 작품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먼저 몽크의 작품에서 주로 얘기한 것은 삶과 사랑, 죽음 이였다. 몽크의 전반적인 정서는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어린 시절 어머니의 결핍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연애와 사랑, 그로 인해 그의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불안으로 야기되는 삶의 태도를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몽크는 자신이 삶 속에서 직접 겪고 고통을 느낀 것들로 예술 하였고 이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얻었다.

그의 작품 중 사랑에 관한 작품들은 <키스> 【도판1】 은 사랑을 하면서 오는 욕망, 상실, 고통 등 일반적인 감정들이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 내면

8 선민아,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적 특징과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p.15

의 표현을 솔직하게 표현 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불안정 된 애착관계는 몽크가 사랑에 대한 태도를 여성 혐오와 억압적,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죽음과 실존적인 고민에서도 몽크의 어렸을 적 직접 겪은 경험으로 공포를 표현 하였는데, <절규> 【도판2】는 인간이 자연 순환 과정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을 상징화 하였다.⁹ 어릴 적부터 죽음의 공포와 함께 살아 온 그는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과정을 누구보다 크게 느꼈을 것이다.

어렸을 적 기억은 몽크의 삶 전반에 어두움을 드리우게 하는 원인 이였고, 그 안에서 본인 스스로를 자아인식의 공간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이었다. <외로운 사람들> 【도판3】은 개인적인 슬픔과 인간의 고민과 고독이 느껴진다. 몽크의 특징은 작품에 인물이 등장하며 그 인물들의 깊이 있는 내면성 표현에 집중을 하였다.

몽크는 한낱 개인적인 이유로 작품에 감정을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깊이 있는 인간 내면의 묘사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질문하게 한다. 그리고 몽크의 작품 안에서 절망적인 모습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은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¹⁰ 그의 작품은 고통스러운 삶의 결과물이지만 힘든 삶 속에 그가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희망인 것처럼 작품 안에도 희망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 해주는 치유책 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루이스 부르주아 역시 개인적 배경에 의해 자전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화가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가정교사의 10년에 걸친 불륜

⁹ 마티아스 아르놀트, 『몽크』, 한길사, 1997, p.78

¹⁰ 오광수, 박서보, 『몽크』, 도서출판 재원, 2004, p.12

관계를 사춘기 시절 알게 되었고 이 관계는 부르주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까지도 지속이 된다. 어린 부르주아에게는 최초의 상처이고 그녀가 아버지에게 원망과 어머니에게는 연민의 감정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 감정들은 여성으로 겪는 Sex, Gender에 대한 고찰과 어린 시절 겪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즉 남성에 대한 부르주아의 생각과 본인이 경험한 그리고 봐온 여성으로써의 생각은 <탄생> 【도판4】 , <Just Hanging> 【도판5】 , <여자=집> 【도판6】 처럼 작품에 고스란히 표현이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겪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작품에서 다루고 있다. 부르주아의 작품에서 많이 다뤄진 생식기 형상의 작업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적 상처를 조각을 통해 돌과 나무를 깎고 쪼는 행위로 아버지에 대한 애증 그리고 자신의 폭력성을 작품으로 승화 하였고 바느질에 몰두하며 조각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꿰매며 스스로를 위로 하였다. 드로잉 또한 자신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과정이고 과거와 세상을 용서하는 행위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자신을 보는 행위,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그녀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힘든 시간들의 연속 이었겠지만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 이었다. 부르주아의 삶에서 겪은 어두운 감정들, 상처들은 강한 예술적 생명력이 있었고 90세가 넘어서도 끈임 없는 자아 성찰을 통해 개인적인 과거의 상처는 여성과 남성,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 되었고 장르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였다.

세 번째 팔대산인은 개인적 아픔과 시대적 영향으로 고통과 불안을 창작으로 승화한 화가이다. 그는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왕족의 후예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19세가 되던 해는 그의 인생에서 비극적인 삶으로 전환 되었다. 명나라가 청에게 패망하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위협을 느껴 신분을 숨기고 피난과 은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몇 년 뒤 그의 아내와 자식도 죽음으로 잃고 그 충격으로 속세를 벗어

나 승려가 되어 예술 창작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나라 조정의 꾸며낸 수술에 위이며 다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 시대의 영향으로 한순간에 가족들의 죽음과 불안정한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뒤바뀐 삶은 그에게 더욱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일책의 여섯 번째 작품 쏘가리> 【도판7】을 보면 그 당시에 몸소 느낀 힘들고 불안한 감정은 은유적이지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같다. 비극적인 생활은 그의 삶의 변화와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화쌍부도죽> 【도판8】은 새가 서있는 여백의 넓은 공간은 구체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들어나는 것 같다. 그는 세상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작품 활동을 통해 소리 냈으며, 이런 행위를 통해 감정을 해소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정신적 해방을 하는 것이며 팔대산인 또한 자신 스스로를 치유하였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몽크, 루이스 부르주아, 팔대산인의 작품 세계는 삶에서 직접 경험한 고통적인 불안한 감정을 예술로 승화한 작가들이다. 연구자 또한 삶을 살면서 느낀 불안한 감정에서 출발하여 작업으로 발산하였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여 지는 차이는 극명하다. 세 작가는 화면에 발산하는 표현들이 직접적이고 적나라하며 직선적, 은유와 상징적이지만 연구자는 정제하며 과감하지 않은 표현들로 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이것은 불안함을 대처하는 방식이자 화면에 표현하는 방식은 비유적이고 사유적으로 드러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2. 조형적 연구

아픈 곳이 있으면 그 곳이 신경 쓰이고 왜 불편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 때부터 본인의 심리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변

화하는 감정을 따라 나의 안과 밖을 보다 보면 흥미로웠다.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시선이 달라졌다. 주의 깊게 어떤 것을 습관적으로 보는 것은 나만의 심미를 찾는 과정이다.¹¹ 연구자는 습관적 시각체험을 통해서 초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해 하는 심리상태에서 나약하지만 그것만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늘 심리 기저에 있던 부정적 잔상들은 자유로운 연상 작용으로 밖에 있는 주변 환경들과 그때의 감정에 의해 의식 위로 나와 마음에 다시 날카롭게 자극이 되었다. 이런 해소되지 못한 고착된 감정은 창작활동을 통해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는데 순간 지나가 버리는 감정들은 드로잉으로 재빠르게 기록을 했다. 드로잉으로 기록된 작업들은 드로잉 그 자체로 완성이 되거나 내밀하게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1)드로잉

1900년대 이후 미술사적 이론에 근거에 현대드로잉에 접근해 보면 드로잉은 대상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표현해 내는 방법이면서 작가의 사고와 논리를 형상화해가는 과정 중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작업이다.

현대 미술에서 드로잉의 역할은 단순함과 즉흥성이 있어 작가에 의해 살아있는 감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고 그로인해 작가의 내면세계를 가장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형요소로서 관람자에게 창조적 시각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진취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술 표현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¹²

기존에 해왔던 완성도 높은 회화나 조각 작품에서 단순함과 즉흥성을 가지

11 가오싱젠,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p.236

12 김재원, 『발상적 전환을 통한 현대미술의 드로잉 역할』, 한양대학교, p.106-108

고 있는 드로잉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유는 1960년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작가들은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개념적 경향이 대두 되면서 다양한 매체적 재료의 활용을 접하면서 드로잉이 미술개념 확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에게 드로잉은 그 때 느꼈던 감정과 주변 환경들이 섞여 느껴지는 것들을 의식에 의존한 무의식적인 표현으로 순간을 기록하는 중요한 첫 과정이다. 고요한 내면풍경으로 보일 때도 있었고, 억압된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었다. 가끔은 의미 없이 지나간 이미지들이 불현듯 감정에 따라 떠오를 때에는 그 순간 연구자에게 의미 있는 이미지가 되었다. 의미 없는 이미지는 감정과 섞여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뜻이다. 갑자기 왔다가 없어지는 수시로 변하는 내면 풍경이므로 내가 담고자 하는 인상을 신속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메모를 하듯 빨리 감정을 담기 위해서는 드로잉이 적합했다. 휴대하기 쉬운 작은 사이즈인 드로잉 북에 연필과 펜, 오일파스텔, 목탄 등을 써서 드로잉을 했다. 그 중에서도 연필은 연구자의 정서와도 맞았고 감정에 따라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했다. 선의 강, 약. 그리고 빠르기의 변화 등 감정변화를 표현하기 효과적인 재료였다. 이 외에도 오일파스텔, 목탄은 손으로 직접 문개거나 덧바르는 행위가 감정표현을 가식 없이 드러나게 해준다.

언제나 드로잉을 하기 위해 손바닥만 한 드로잉에서부터 38 X 53 사이즈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녔다. 이는 큰 화면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표현이 쉬웠다. 1년 정도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 비교적 작은 작품 위주로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감정을 발산하는 일기 형식의 드로잉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그리려고 하니 드로잉 북은 언젠가부터 작게 느껴졌다.

드로잉 작업을 할 때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드로잉의 선 하나, 붓 터치 하나에 감정을 실었다. 연구자에게는 작업을 하면서 감정을 실은 연필 선 하나, 붓 터치 하나를 긋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화면이 커지면서 작은 드로잉 북에 표현한 감정선을 불러 오기란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선으로 끝내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화면이 커지면서 그만큼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나오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답답하고 막히는 순간이 오면 다시 드로잉으로 돌아와 드로잉을 하고 한 것을 봄으로써 감정을 집중시켜 그리려는 힘을 모으는 작업을 했다.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지나가는 감정들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하지만 드로잉은 완성도가 비교적 낮아 보이게 하는 단순한 선들과 단편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바탕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이고 단편적이지 않고 생각의 흐름이 보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양을 드로잉을 했었다. 드로잉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창작 에너지의 집약체이고 근본이고 작업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다.

2) 여백과 점경 인물

여백의 사전적 의미로는 화면에서 묘사된 대상 이외의 부분. 특히 동양화에서는 예부터 여백을 화면에 두루 퍼져 있는 기(氣)의 표상으로 여겼다. 중국의 초기(10세기) 산수화가들은 ‘산수의 기상(山水氣象)’을 묘사하고자 여백을 두었다. 여백은 광(光)과 기를 의미한다.¹³

¹³ 월간미술,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월간미술, 2015, p.328

연구자의 작품에 크게 차지하는 여백, 즉 배경은 중요하다. 배경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표현 하고자 하는 바와 그 당시 심리에 따라 안료의 색, 농도, 결정의 굵기를 정해 즉흥적으로 한다. 배경작업은 연구자의 의식적으로 하기 보다는 붓이 가는 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무의식과 직관, 우연성으로 작업을 한다. 채색은 며칠을 거듭 쌓아 올린다. 채색의 중첩은 본래 각자 색이 아닌 가리려고 해도 오묘하게 겹으로 뒤엉키어 드러나는 색들은 연구자의 무의식 풍경을 의미한다. 또한 분채, 아크릴, 수채화 물감, 연필, 오일파스텔, 목탄, 사인펜, 볼펜 등 그리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순서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재료를 중첩시키고 덧바르고, 뭉개고, 사포로 문지르고, 콜라주를 하며 자유롭게 그 당시의 본인을 표현 하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작업에 근간이 되는 드로잉 요소와 여백은 작품에 조형적 특징이다. 두 요소의 관련성은 연구자는 현장에서 그 때의 감정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품에서의 여백은 연구자의 무의식을 뜻하며, 그 당시의 감정, 분위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드로잉의 선은 그 때의 생각,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와도 같다. 여백과 드로잉은 순간을 말하고 내면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뜻한다. 여백과 드로잉에 재료적인 연관성은 장소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재료의 선택이 자유로운 곳과는 다르게 현장 드로잉은 바탕을 물감과 붓이 아닌 지류를 다양하게 씌으로써 물감과 붓을 대신 한다. 그 당시에 표현 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적합한 종이의 종류는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휴지, 메모지, 원고지, 모눈종이, 누런 종이 등 다양한 지류에 작업을 한다. 장소로 인해 재료의 제약이 있을 뿐 이런 바탕들 또한 연구자가 추구하는 무의식의 배경이다. 재료의 선택이 자유로운 장소인 작업실 같은 곳에서는 여백 부분에 연구자가 원하는 분위기나 감정에 맞게 다양한 재료를 써서 적절한 색을 표현을 한다.

여백의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는 이의 무의식의 풍경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품4】 , 【작품6】 과 같이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하다. 화면 가득히 있는 여백은 주관적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형상이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정서와 결합시킴으로서 심상을 불러일으키고 명상에 가까운 깊은 생각에 잠기도록 표현하였다.¹⁴ 또한 여백은 보는 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틈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아닌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연구자의 내면을 뜻하는 여백 안에 둘러싸인 작은 인물들 즉, 점경 인물은 풍경 안에 소극적으로 숨어 있다. 외부로부터 불안한 자극이 오는 삶에서 거리를 두고 내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자신 그리고 밖을 바라본다. 이것은 밖에서 내면을 보는 행위, 안에서 밖을 보는 행위를 점경 인물에 투과하여 상처 받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안과 밖의 세상을 한 발 물러나 관찰을 함으로써 나와 나를 둘러싼 현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점경 인물들 대부분은 눈, 코, 입이 생략 되어 있다. 이것 또한 얼굴 안에 표정이 비어 있는 여백과도 같은데 이는 감상자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여백의 상상이 아니라 작품 안에 표현된 분위기로 어느 정도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연상이 되기도 하며 내면의 풍경은 잡을 수 없는 명확하지 않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불분명한 내면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미묘하고 모호하게 나타냄으로써 감상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표정과 본인만의 내면풍경을 상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화면 공간의 여백이 아닌 생각의 여백의 과정인 바라보기 행위이다. 이 행위는 불안에서 거리감을 두기 위한 여백이기도 하며 연구자 삶

¹⁴ 가오싱젠,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p.143

의 여백이다. 작업을 들어가기 전 먼저 새하얀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행위는 내 안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고 이는 명상을 하는 시간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정의 표출만이 아닌 과잉이 된 감정을 누르고 동시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된다. 또한 화면 바라보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화면에서 생각하지 못한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빈 화면을 보고 있는 이유이다. 작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화면 보기는 계속 진행된다. 끈임 없이 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작품과 연구자의 속도를 맞추고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3) 회미한 색채와 선

전체적인 작품의 색채를 보면 회미하고 바랜 듯한 무채색 계열의 색들과 회미하고 연약한 드로잉 선들이 눈에 띈다. 앞서 얘기한 배경작업을 시작하기 전 빈 화면은 바라봄으로써 연구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배경 작업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연구자의 심리에 따라 안료의 종류, 색, 농도 등 세밀한 것들이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은 차분하고 바랜 색들을 사용한다. 이것은 자신의 느낌으로만 있는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이미지이지만 자유로운 연상 작용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된 연구자의 무의식의 색채이고 이미지이다. 때때로 변화하는 심리를 색의 섞임을 통해 표현하였다. 배경은 연구자의 즉흥적으로 표현된 무의식적 내면이라고 말하자면 약한 드로잉 선들은 일렁이는 심리 안에 작게 무엇인가를 말할 하려는 연구자의 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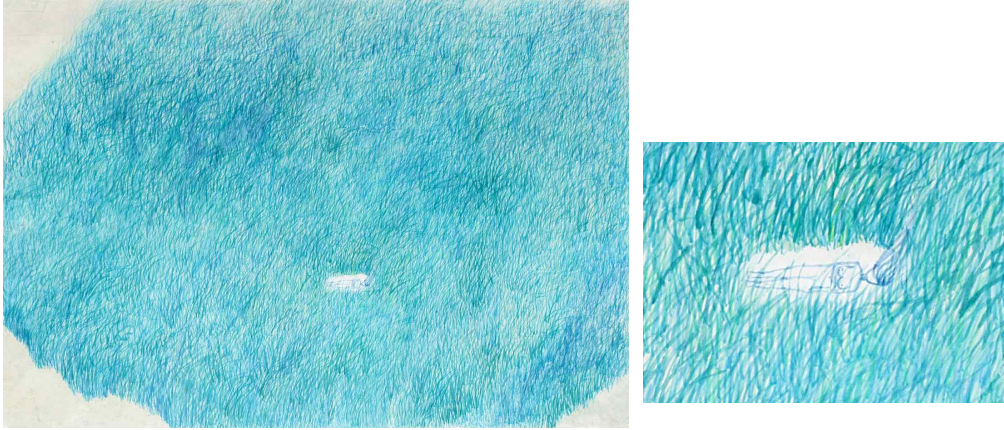
대부분 바다, 우물 등 불안을 상징하는 이미지들과는 다르게 인물들은 연약한 느낌으로 표현 하였다. 이는 연구자에게 감당하기에 벅찬 불안을 연약

해 보이는 인물들이 감당해 내야 하는 상황, 연구자의 심리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안을 마주하는 인물들은 고통스럽거나 불안을 당하고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자가 침착하게 내면을 관찰하듯 작품 속 인물들도 불안과 마주하면서 조용히 본인의 내면을 관찰하고 있다.

연구자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보다 명확히 보이지 않는 내면은 미지의 세계 같아서 더욱 흥미로웠다. 나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무의식적 이미지들은 의식적일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가 모르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유 모르게 시선이 가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에 그 곳에 시선이 갔을까 하는 의문으로 출발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단서를 찾고 길을 찾아 가는 과정 또한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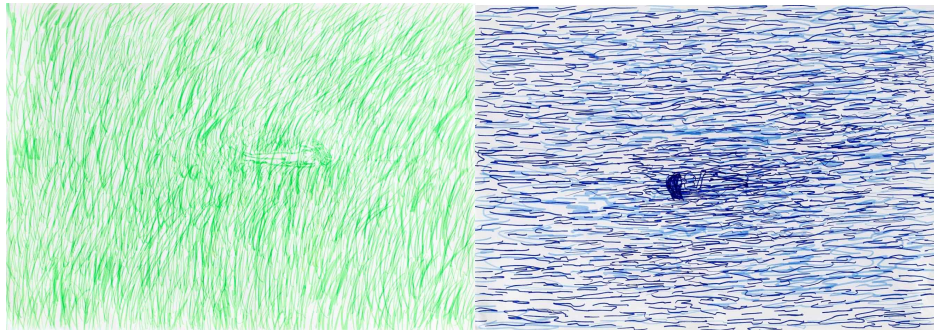
2014년 ‘보이지 않는 것’ 석사 청구전은 감정을 드로잉 한 것을 바탕으로 드로잉 할 때 느꼈던 그 때의 순간적인 느낌의 표현과 구체적인 내면 풍경의 해석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드로잉은 순간적인 솔직함과 작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구체화 된 내면 풍경의 작업은 불분명했던 내면 풍경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고 감정을 정제시키기도 하며 연구자 본인을 바라보는 행위였다.

3.작품해설



◀ 【작품1】 R.I.P (REST IN PEACE) / 손지에 혼합재료 / 194 X 130cm / 2014

▶ 【작품1】 세부 확대 이미지



◀ 【작품2】 R.I.P (REST IN PEACE) 드로잉 / 종이에 사인펜 / 25 X 35cm / 2014

▶ 【작품3】 R.I.P (REST IN PEACE) 드로잉 / 종이에 사인펜 / 25 X 35cm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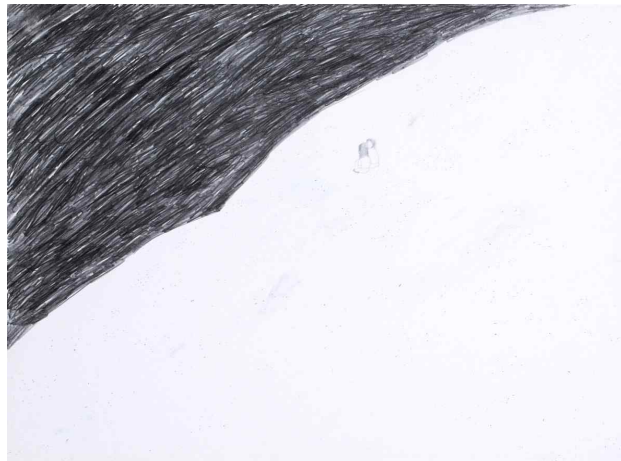
【작품1】 , 【작품2】 , 【작품3】 무덤을 형상화 한 것이다. 누구도 들어 올 수 없는 무덤 안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상태였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편안한 상태인 것 같았다. 120호 사이즈 순지에 사인펜과 붓으로 풀들을 고민 없이 그리며 불안한 마음을 잠재웠다.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며 위안을 얻는 시간이다. 하지만 색채 심리에서 우울을 상징하는 파란계열의 풀들로 뒤덮인 안, 즉 우울한 현실, 내면 안에서 연구자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는 홀로 외롭게 불안을 견디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작품4】 세부 확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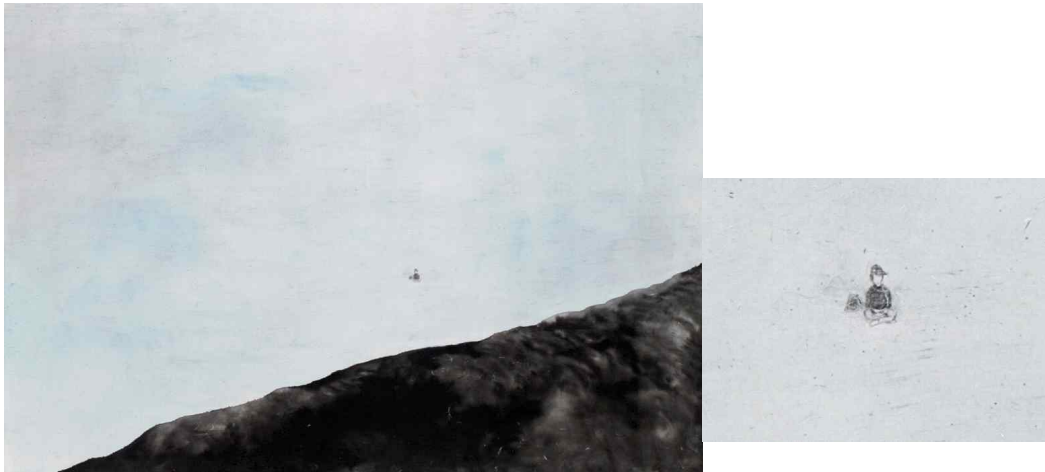


【작품4】 바다, 밤, 우리 / 장지에 혼합재료 / 130 X 115cm / 2014



【작품5】 바다, 밤, 우리 드로잉 / 종이에 연필 / 38 X 53cm / 2014

작업할 당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이 있었다. 다 알 것 같았지만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나와는 분리된 타인 이었다. 【작품4】 , 【작품5】 에서 연인인 듯 보이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노력할 테지만 각각의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보는 상대방은 밤에 보는 바다처럼 보이지 않는 관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몰랐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바다를 볼수록 바다의 양상에 집중하게 될 뿐 머리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볼수록 바다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바다를 보는 사람의 볼 수 없는 어두운 내면과 같아 보였다. 【작품5】 는 38 X 53 사이즈 스케치북에 그 당시 막막함을 상상하며 8B연필로 불안한 마음을 해소 하듯 검은 바다의 선을 채워 나갔다. 그 때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이라도 된 듯 사선 구도의 검은 바다는 일반적이지 않는 불안한 구도에 있다. 【작품4】 는 【작품5】 드로잉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였다. 【작품5】 가 감정을 분출 하였다면 【작품4】 는 연구자가 원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더 내밀하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검은 먹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를 그렸고, 그 위에 연필로 바다의 양상을 표현 하였다. 차갑고 우울한 겨울의 밤바다를 파란계열의 백사장으로 표현하여 우울함과 외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 【작품6】 HER / 장지에 혼합재료 / 194 X 130cm / 2014

▶ 【작품6】 세부 확대 이미지

커져버린 불안한 심경은 【작품6】의 바다처럼 인물보다 훨씬 크게 표현하였다. 본인보다 훨씬 큰 바다를 바라보는 인물은 나약하지만 묵묵히 자신에게 맞닥뜨린 불안을 마주 하는 모습이 강인해 보인다. 일반적이지 않은 불안한 사선경계의 구도는 연구자의 심경과 같이 불안정한 표현이다. 좁고 혼자 외롭게 있는 인물은 푸른 계열의 색채로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힘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인물과 바다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게 그렸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있기를 바란다. 엄마가 힘들었을 때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겨울바다에 앉아 있는 내가 떠올랐다. 내가 엄마였다면, 현재의 나라면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칠후 같은 바다를 보기 위해 추운 백사장을 걸어와 홀로 바다를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보기 위한 노력이자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마주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일 일거라고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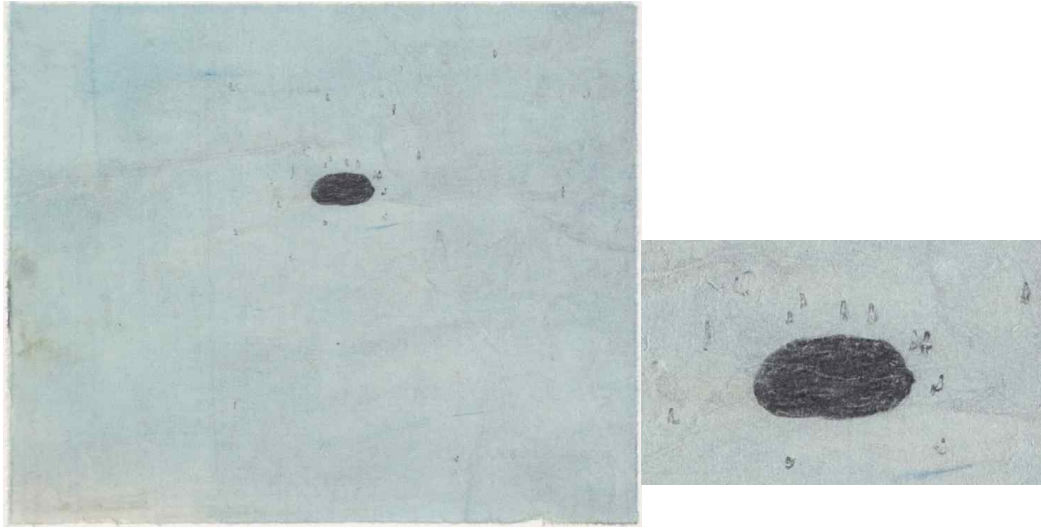
【작품7】 검은 물을 보는 나의 태도, 드로잉/ 종이에 연필 / 38 X 53cm / 2014

이 작품에서 검은 바다는 해결 되지 못한 문제이고, 연구자의 내면이다. 바다는 등장인물 보다 크고 위압적이다. 인물은 체념한 듯 지치고 무력한 자세로 문제를 마주하고 관찰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그린 당시의 감정 드로잉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 나의 태도였다. 이 때 심리에 맞는 연필의 색으로 감정과 생각을 분출하듯 빠르게 그려 나간 작품이다.



【작품8】 HER / 종이에 먹, 연필 / 27 X 22cm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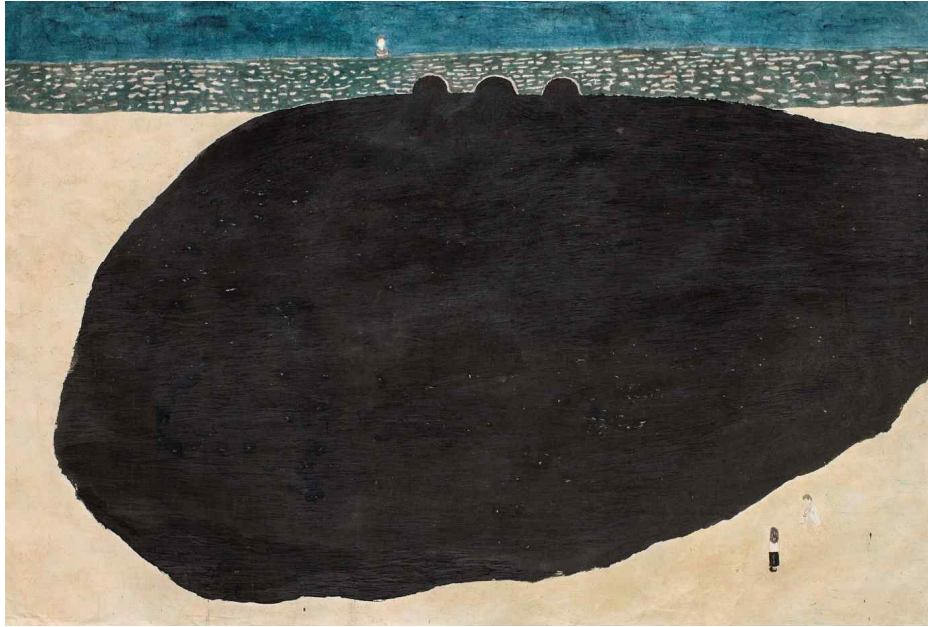
어렸을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힘들어 하던 엄마의 모습이자 나의 모습이다.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하는 얼굴이다. 또렷이 보고 싶지 않은 힘든 기억을 꿈 같이 흐릿하게 표현 하였다. 장지에 얽은 먹을 떨어트려 얼굴의 윤곽을 또렷이 하지 않고 연필로 정리를 해주었다. 손가락과 지우개로 눈물이 흐르듯 보이게 종이를 살짝 벗겨 질감을 표현해 주었다.



◀ 【작품9】 우물을 보는 사람들 / 종이에 혼합재료 / 43 X 61cm / 2014

▶ 【작품9】 세부 확대 이미지

이 작품은 한강 둔치에 모여 강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강 주변에 있는 풍경들, 다른 세계가 더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강 쪽을 향해 앉아서 무엇인가의 홀린 듯 한 시선은 그저 한 곳을 향해 멍하게 보는 모습이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내 모습 같기도 했다. 그리고 바닷가나 강을 보는 사람들은 각자 안에 있는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화면 중앙에는 작게 검은 우물이 있고 이보다 더 작게 점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여백은 광활한 무의식의 내면을 의미하며 그에 비해 작은 검은 우물은 불안의 감정이고 또 그에 비해 더 작은 점들은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다.



【작품10】 검은 물을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 장지에 혼합재료 / 194 X 130cm / 2014

이 작품은 우연하게 보게 된 끝없이 나오는 폐수와 하수통로를 보며 그 당시 연구자의 상황과 맞물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하천의 검은 폐수는 보이지 않는 문젯거리이며 타인의 알 수 없는 마음, 연구자의 내면 상태이기도하다. 어떤 사람은 하천에 더러운 물을 내 보내듯 죄책감 없이 문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체념한 듯 발가벗은 알몸으로 당해 내야만 한다. 끝도 없이 나오는 검은 물은 그 안을 볼 수도 없고 당해내기가 막막하다. 검은 문제들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보다 우위인 것처럼 위에서 관조한다. 화면 전반을 차지하는 검은 폐수는 먹과 연필로 크고 검게 표현 하였으며 그 안을 연필 선으로 가득 채웠다. 인물이 감당하기엔 힘든 불안을 뜻하는 연꽃은 크고 진하게, 그에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인물은 약한 선으로 작게 표현 하였다.



【작품11】 또 다른 나 /종이에 혼합재료 / 38 X 53 cm / 2014

자유롭게 사인펜으로 그린 나무의 형상은 가꾸지 않은 연구자의 내면을 뜻한다. 파란 계열은 우울, 차가움을 뜻하며, 미로 같은 내면의 숲 안에서 있는 인물들은 모두 본인들이다. 작은 인물은 소소하게 일상에서 불쑥 나오는 느낌을 주고 싶어 연필로 작고 낙서 하듯 그렸다. 이유 모르게 시선이 가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에 그곳에 시선이 갔을까 하는 의문으로 출발해 이 작품과 같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단서를 찾고, 찾아 가는 과정이다. 길을 찾아가는 과정 안은 연구자의 무의식이다. 길을 찾는 과정과 목적지는 모두 나에게 향해 있다. 즉,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내가 모르는 내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선이 가는 곳에는 다른 내가 숨어 있고 이것이 나를 찾는 실마리가 되어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다.



【작품12】 망망대해 /종이에 혼합재료 / 38 X 53 cm / 2014

볼 수 없는 타인의 마음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심지어 나의 심리 상태마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무력함과 답답함, 외로운 감정까지 밀려온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스스로를 가둔다. 이는 미로 안에서 길을 잃어 갇힌 것과는 다르다. 망망대해에 혼자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이다. 사람의 흔적조차도 없는 외롭고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갇힌 것이다. 빠져 나갈 의지도 없고 바다 위를 떠 있을 힘조차 남아 있지 않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본인의 마음을 헤아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줬으면 하는 심정 이었다.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타인 일 수도 있지만 본인 일 수도 있다. 이 작품은 모조지 스케치북에 물감과 사인펜으로 드로잉을 하였다. 불안의 감정을 반복적인 물결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해소하고 타자로 인해 일렁이는 내면의 바다를 상상하며 연구자의 내면의 물결을 하나하나 그려 나갔다. 그리고 연구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내면 위에 드로잉으로 설명하였다.



◀ **【작품13】** 인연 / 장지에 혼합재료 / 135 X 90cm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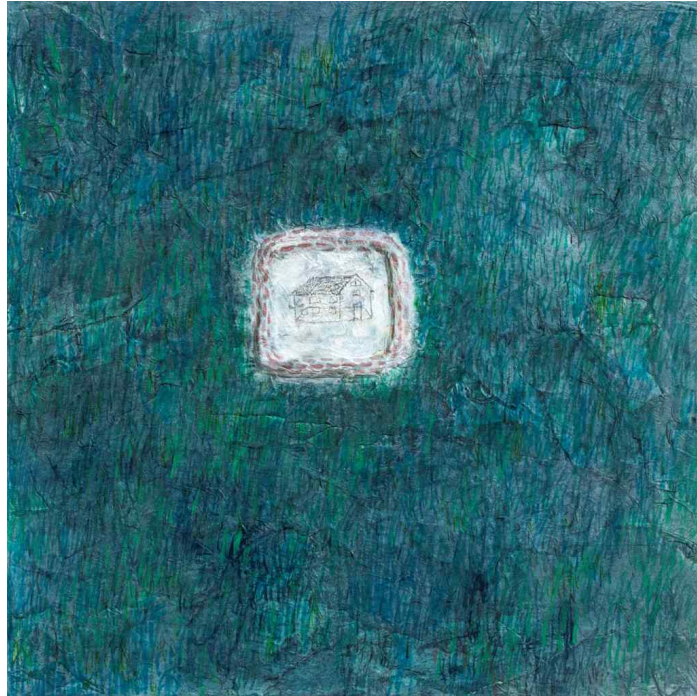
▶ **【작품14】** 인연 드로잉 / 종이에 연필 / 45 X 38cm / 2013

이 작품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인연의 풍경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이리저리 가꾸며 넓혀 가면서 살아간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나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떠나가기도 한다. 들어온 사람은 오래 있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며 본인이 내 몰기도 하며 붙잡기도 한다. 어느 방향에서 내가 있고 그 때 어떤 사람과 마주칠지 아무도 모른다. **【작품13】**의 작업 과정은 작은 알맹이가 있는 얇은 파란계열의 분채와 얇은 검은 분채로 여러 번 바탕 작업을 하고 이전에 했던 **【작품14】**를 토대로 화면 구성을 하였다. 검은색 과슈와 초록색 과슈로 연구자가 생각하는 삶의 영역을 나누고 여러 번 색을 올려 경계를 또렷이 나누었다. 이와 상반되게 약하게 연필로 인물들을 그린다.



【작품15】 탈출, 다시 안 / 종이에 혼합재료 / 97 X 132 cm / 2014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만의 여러 벽을 쌓는다. 삶의 공간으로, 방어 기재용으로, 지식으로, 선입견으로 여러 가지로 쌓고 허물며 삶을 사는 모든 행위 자체가 나만의 벽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였다. 각자 만의 경험들이 쌓여 나를 만들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를 울아 떼는 선입견의 벽만 쌓는 것 같아서 모든 행동들, 생각들이 의욕이 없어졌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거미줄처럼 마음, 머릿속으로 쌓아 올린 여러 벽들 때문에 끈임 없는 자신만의 벽 안에 갇힌다. 작업 과정은 벽돌을 하나하나 그림으로써 나를 쌓고 선입견을 쌓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했다. 오일파스텔로 벽돌들을 그리며 손으로 뭉개기도 하며 뭉개진 벽돌 위에 다시 쌓기도 하며 그려 나갔다.



【작품16】 자화상 / 종이에 혼합재료 / 46 X 46cm / 2014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여도 벽이 있어 다른 이는 들어 올 수 없는 공간이다.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는 숲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 타인들에게 상처를 받아 자기 방어를 하고 스스로를 고립 시켰던 나와 같이 느껴졌다. 장지를 구기고 찢은 장지 조각들을 붙여 그 위에 거친 숲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종이로 집 주위 벽을 쌓고 벽을 경계로 숲과 안전한 공간으로 나누었다. 숲은 무의식을 뜻하며 벽 안은 연구자가 짐작이 가능한 의식적 공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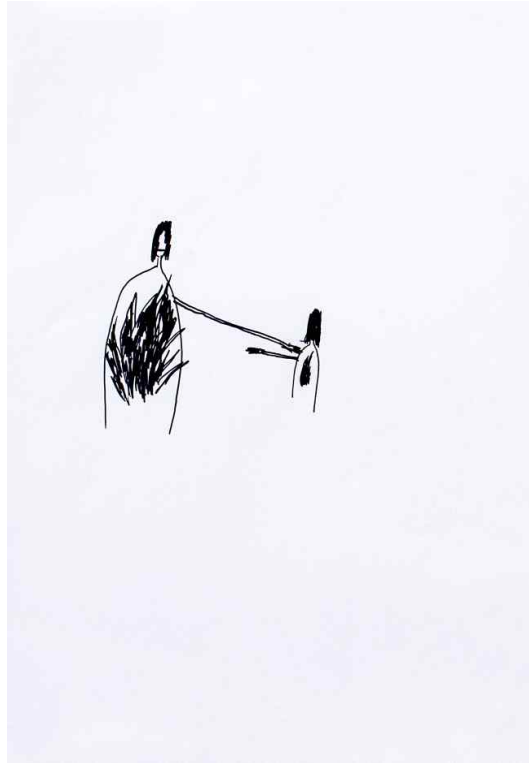
【작품17】 위로 / 종이에 혼합재료 / 73 X 60cm / 2014

위로를 받고 있는 남자와 위로를 해주는 여자가 등장 한다. 위로를 해주는 인물도 힘들어 보이지만 상대방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는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있다. 연구자는 그 당시에 남자 인물이 되어 위로를 받고 싶은 적도 있었고, 여자인물이 되어 나의 온기를 주는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눈, 코, 입이 있고 골격도 표현이 된 인물 이였다. 하지만 상황과 분위기, 인물들의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인물들의 표정과 골격을 지웠다. 두 인물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채색이 끝났을 때 사포로 여기저기를 긁어 바람을 표현하고 붓으로 색을 닦아내어 여기저기 닳은 느낌도 주었다.



【작품18】 화 / 종이에 혼합재료 / 145 X 91cm / 2014

불투명하기 만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참고 있던 화를 표현 했을 때 나의 심리상태이다. 화를 내면 마음은 시원하고 편안해 져야 하지만 오히려 외로웠다. 이것은 타인과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만 감정을 쏟아 내어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연구자는 깊숙한 공간으로 들어와 움츠러 들었다. 아무도 없는 파란 공간 안은 차갑고 우울한 연구자의 내면이다. 상대적으로 인물보다 큰 우울한 내면 안은 내면의 주인인 내가 주체가 아닌 외로움과 빈 공간이 주체가 된 공허한 공간이다. 소극적인 성격인 인물의 표현은 작게 난 창문과 문이다. 이 작은 구멍으로 불은 크게 밖으로 분출 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물은 작게 웅크리고 있다.



【작품19】 서로의 불꽃 /종이에 펜 / 26 X 18cm / 2014

각자에게는 행복, 슬픔, 분노, 짜증, 즐거움 등 여러 가지의 감정 상태가 있다. 자신에게 어떤 상태가 와도 누군가는 그 감정의 불꽃을 지켜봐주며 만져주는 행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타인일수도 있지만 먼저 본인이어야 한다. 당시 발열하는 나의 감정을 누군가의 위로와 시선이 필요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 현장에서 드로잉을 했다.



◀ 【작품20】 혼자 있는 시간/ 종이에 혼합재료 / 27 X 22cm / 2014

▲ 【작품21】 혼자 있는 시간 / 종이에 연필 / 41 X 27cm / 2014

▶ 【작품22】 혼자 있는 시간 / 순지에 혼합재료 / 53 X 38cm / 2014

목욕을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으로 허락된 시간이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물이라는 성격은 어떤 것을 차단, 나누는 것 이어서 목욕을 하는 것, 욕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며 완전한 혼자로 있을 수 있게 한다.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엄마의 자궁 안, 양수 안을 부유하듯 물 안에 태아처럼 있는 것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일 것이다. 세 작품 모두 물이 인물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것은 자기 방어의 역할이고 치유의 의미이기도 하다. 【작품20】의 인물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웅크리고 외부 세계와는 차단 된 물 안에서 치유를 받고 있다. 【작품21】은 야간작업을 할 때 느꼈던 감정이다. 새벽에 혼자 하는 작업은 혼자만의 시간이고 욕조 안에 들어가 외부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느낌을 받는다. 연한 연필로만 보일 듯 말 듯 하게 채워 나가는 행위는 자신을 조심스럽게 위로하는 행위와 같이 느껴졌다. 【작품22】는 많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인물은 많은 물들로 가득 채워진 큰 욕조에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다.



【작품23】 두 세계 / 종이에 물감, 연필 / 53 X 38cm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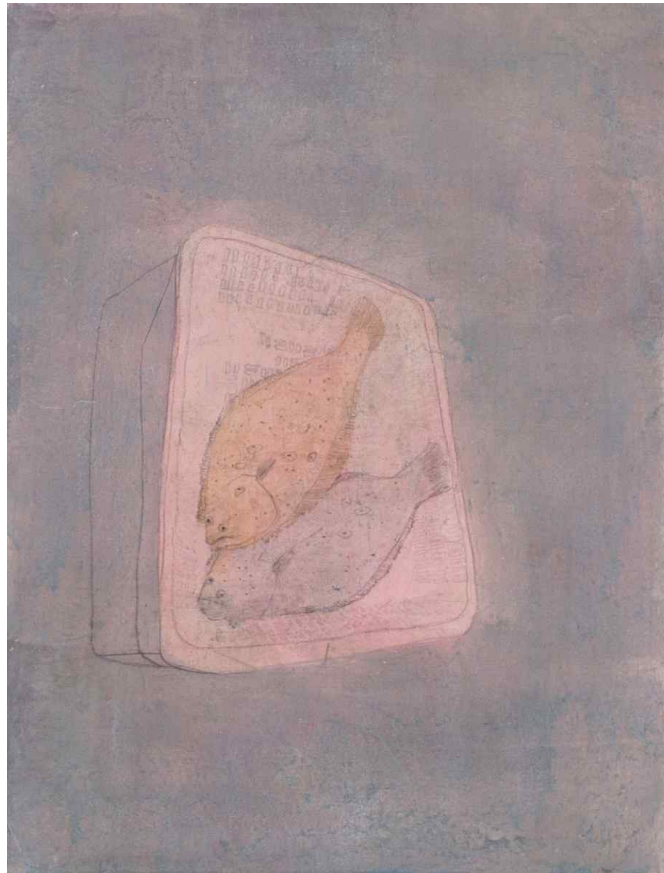
사람들은 분리를 통해 불안을 느낀다. 불완전체인 사람들은 외부와 결합을 통해 분리 상태의 극복을 하려 한다. 우리는 삶을 살며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 다른 두 타인이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체인 하나가 되려 하지만 여전히 다르고 합쳐 질 수 없는 두 세계일 뿐이다. 표현방법은 무심하게 일상적인 느낌을 표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물이 닿으면 구김이 가는 모조지로 선택을 하였고 색 또한 다른 색과 중첩을 주지 않고 얇게 칠하였다. 인물들도 얇은 드로잉으로 낙서처럼 그려 일상 가까이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 【작품24】 키스 / 종이에 연필 / 41 X 27cm / 2014

▶ 【작품25】 회오리 / 종이에 연필 / 41 X 27cm / 2014

타인과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은 나뉜 무력한 객체를 일시적으로 분리 상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인 착각일 뿐 더욱 공허함이 크게 서로에게 다가온다. 두 작품은 장면이 넘어가듯 연관 없어 보이는 다른 두 드로잉으로 엮였다. 두 드로잉은 한 문장과 같다. 【작품24】는 연인이 키스를 하는 것이고 【작품25】는 조용한 쉬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두 사람은 키스를 하였다 ~처럼 이라는 문장이다. 연필로 그려진 형상은 건조하고 공허한 인간의 조용한 쉬임이라는 것을 연구자는 설명하고 싶었다.



【작품26】 우리 / 종이에 먹, 연필 / 58 X 43cm / 2014

못난 두 마리가 버둥거리며 작은 바구니 안에서 있는 모습이 불완전한 본인과 또 다른 불완전한 타인이 작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타인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다. 표현 방법은 어쩔 수 없는 답답한 관계를 색으로, 물고기의 표정으로 표현 하였으며 미끄러운 두 마리가 좁은 공간에 겹쳐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설명을 하였다.

III. 결론

불안한 감정으로 변화하는 내면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본인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연구자에게 창조적 계기가 되었다. 부정적인 정서는 연구자에게 긍정적 자극으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스스로 치유의 역할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불안의 정서가 연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떻게 가시화 되었는지 그 과정 대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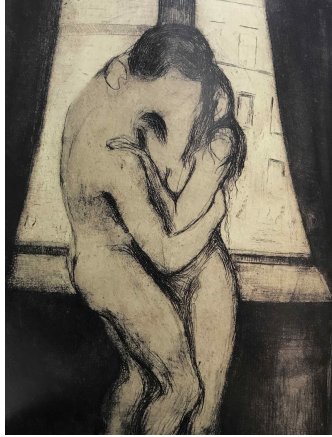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있어 자아인식의 과정이다. 창조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주하기 싫은 나와의 대면은 평생을 덮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나를 알게 해주는 행위이며, 창조적 계기, 과거와 현재의 나를 대면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다.

연구자는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담담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연적인 효과로 중첩된 색들은 연구자의 변화무쌍한 심리와 같았다. 때에 따라서는 배경을 구기거나 번지는 효과, 사포로 문지르기 등 다양하게 다가갔다. 배경을 제작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표현 하고자 하는 드로잉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그 순간의 감정에 집중해 최대한 그 때의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중첩된 연구자의 내면 위에 연약해 보이는 드로잉 선들은 일렁이는 심리 안에 작게 무엇인가를 말할 하려는 연구자의 목소리였다. 불안의 감정은 예기치 않게 연구자에 다가와 일상에 파장을 주었고 그 때 마다 메모를 하듯 드로잉으로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남겼다. 드로잉이 가진 순간적인 기록들은 그 자체로도 작품이고 새로운 작품을 할 수 있는 힘과 다양한 가능성을 주었다. 하지만 드로잉의 작업은 연구자가 지나가는 감정들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했지만 드

로잉은 작품의 완성도가 비교적 낮아 보이게 하는 단순한 선들과 단편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바탕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이고 단편적이지 않고 생각의 흐름을 보이게 보다 많은 양을 드로잉을 했었다. 드로잉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창작 에너지의 집약체이고 근본이고 작업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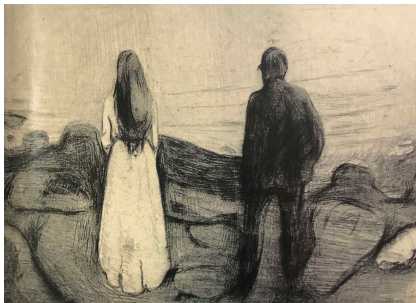
밤과 낮처럼 세상에는 많은 것들에 양면이 존재한다. 우리 안에는 밝은 면이 있듯 당연히 어두운 이면이 존재하고 우리는 각자의 어두운 면을 대면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어두운 감정을 유발하는 요소들 중 불안은 우리 안에 언제나 머무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불안의 감정으로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이런 불안한 감정에 주목했다. 연구자를 힘들게 하는 우울하고 자주 뒤바뀌는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이것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업을 하는 전 과정은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나를 보게 하는 시간 이었다. 또한 나를 보는 동시에 본인을 스스로 위로 해주는 역할도 받을 수 있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본인의 어두운 감정을 마주하기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연구자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조금이나마 본인 안에 있는 어두운 이면을 인식하며 바라보기를 바란다. 연구자 본인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삶에 어두운 정서를 받아들이고 창작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도판



◀ 【도판1】 몽크, <키스>, 32.7 X 26.3cm, 에칭, 1895

▶ 【도판2】 몽크, <절규>, 35.2 X 25cm, 석판화, 1895



◀ 【도판3】 몽크, <외로운 사람들>, 15 X 21.2cm, 드라이포인트, 1894

▶ 【도판4】 루이스 부르주아, <탄생>



◀ 【도판5】 루이스 부르주아, <Just Hanging>, 76.2 X 61cm, 2009-2010

▶ 【도판6】 루이스 부르주아, <여자=집>



◀ 【도판7】 팔대산인 <안일책의 여섯 번째 작품 쏘가리>

▶ 【도판8】 팔대산인 <하화쌍부도축>

참고 문헌

단행본

- 가오싱젠,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 마티아스 아르놀트, 『몽크』, 한길사, 1997
- 오광수, 박서보, 『몽크』, 도서출판 재원, 2004
- 앨런 호위츠, 『불안의 시대』, 중앙북스, 2007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문예 출판사, 2004
- 월간미술,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월간미술, 2015
- 저우스편, 『팔대산인』, 창해, 2005
- 카를 융,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4
- 켈빈S.홀, 버논J. 노드비, 『융 심리학 입문』, 문예 출판사, 2004
- 프로이트, 『프로이트 전집1:정신 분석 강의』, 주식회사 열린 책들, 2004.

학위논문

- 권지은, 『불안의 극복을 주제로 한 회화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2015
- 김민정,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2003
- 서호상, 『팔대산인의 화풍과 사상적 배경 연구』, 계명대학교, 2006
- 선민아,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적 특징과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손보경, 『불안의 회화적 표현연구』, 상명대학교, 2003

이성순, 『팔대산인 화조화의 사의성 연구』, 동국대학교, 2001

이유지, 『내적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의 회화적 승화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2015

이호정,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에서 불안 이론 연구』, 동의대학교, 2015

허단비, 『외상성 경험을 통한 불안 흔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15

학술지

김재원, 『발상적 전환을 통한 현대미술의 드로잉 역할』, 한양대학교

이주연, 『루이스 부르주아의 바느질과 드로잉에서 나타난 자기 치유적 미술치료 연구』, 동서대학교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the Master's pre-claim in 2014, 'Invisible', and is a study that sets anxious emotions as the study's stimulus, investigates dark emotions, up to the process of receiving consolation after the process of creating an image of one's psychological state.

From birth to the process of living, and death, life is a continuation of anxiety. Furthermore, one also feels uneasy in various moments of our lives. Anxiety, which comes from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anxiety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nxiety due to difference between ideal and reality, is a universal feeling of humans that is felt everywhere and by everyone. In modern society, unrestrained competition and performance-based system further cultivates the anxiety. And this anxiety felt ontologically, socially and personally gives us uncomfortable feeling in various ways.

I used to wonder where from and how these uncomfortable feelings come when such inconvenient emotions occur to me. This anxiety affected my emotional state from my childhood till I grown up. Despite it was very hard to endure the emptiness comes after this anxious feeling hit me hard, by performing the creative activities, I tried to face the feelings and see through inside of my mind which I never tried before.

The anxiety based feelings always at the bottom of my mind

stimulated my work together with the momentary feeling, circumstances around me, and my imaginations. In other words, those 'negative anxious emotional states' became my 'positive stimulation'

When I visualized the invisible emotions, and faced the images, I could finally visualize myself and aware myself in it. And from that, I felt a sense of security and bliss at the same time.

The whole process of my work was a healing moment to myself that makes me see through myself, and comfort myself.

In this paper, I explore the inner scenery through anxiety. And through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that, I am blisssed and calmed. Also, it is detailed how the anxious emotions of the me influenced and lead to a piece of work, and its formative features are explained. It is also explained about how anxiety and comfort are revealed in the work through analysis.